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삼성중공업, 일거에 2.8조원 수주

삼성중공업이 유럽지역 선주로부터 25억달러 규모의 선박 블록 및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함.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라고 보도됨. 이번 계약은 러시아 Arctic LNG-2 프로젝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Secondhand prices for aged tankers inch closer to scrap values

탱커의 중고선가가 폐선가(scrap)와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도됨. 겨울철 시황이 선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일본 Mitsui OSK Lines는 2003년에 건조된 30만DWT급 유조선에 대한 매각가격을 2,350~2,440만달러로 책정했다고 보도됨. VesselsValue에 따르면 폐선가치는 1,520만달러 수준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Clarksons: average voyage lengths up for fifth straight year

Clarksons에 따르면, 전세계 선대의 평균 운항 거리가 5년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됨. 2020년 바이러스에 의한 전례없는 운항 차질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됨. 2020년 연간 해상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3.6% 감소할 전망이나, 톤당 운항 거리는 0.7% 가량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Two groups lined up for major LNG contracts in Mozambique

Total사가 주도하는 200억달러 규모의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에서 2기의 액화 트레인을 건설하고 있는 Saipem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개의 중요한 화물운송주선계약을 추진한다고 보도됨. 관계자에 따르면 2개의 계약 규모는 수천만달러 수준이며 액화 트레인 건설을 위한 모든 원자재를 포함한다고 보도됨. (Upstream)

대한조선, 유조선 1척 수주

대한조선이 유럽지역 선사로부터 아프라막스급 원유운반선 1+1척을 수주했다고 밝힘. 인도기한은 2022년 3월까지라고 보도됨. 이번 수주로 대한조선의 수주잔고는 총 17척으로 증가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최초 수소 추진선 2023년 이후 등장

노르웨이 조선 그룹 Havyard는 2023년 이후에 최초의 수소 추진 선박을 운항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보도됨. Havyard는 실행 가능한 수소추진엔진솔루션을 내년에 완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새로운 기업을 설립했다고 보도됨. 선급의 기본인증(AiP)은 내년에 받게 될 전망이지만 최초의 수소 추진 선박 운항은 2023년이 지나야 될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